조연 아닌 주연으로!…매경기 선전 펼치는 중견선수들

젊은피 돌풍에 맞서는 베테랑 투혼

선발급 황종대 올해 6번경주서 5승
함동주 역시 5승…연대율은 100%
우수급 이용희 추입승부 승률 100%
김원진도 3승 승률100% 굿 스타트

신인들의 매서운 돌풍 속에서도 실력발휘를 하고 있는 베테랑 선수들. 선발급에서 자력승부로 전법을 바꾸면서 5승을 거둔 황종대, 매 시합 과감한 승부로 연대율 100%에 5승을 거둔 함동주, 우수급에서 승률 100%와 3승을 거둔 김원진(왼쪽부터) 사진 | 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 경륜은 레이스 운영이 코로나19로 인해 들쑥날쑥하고 있다. 휴장과 재개장을 반복하면서 선수들이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상황에 다른 어느 때보다 신인들이 유독 강세를 보이는 점도 올해 경륜의 특징이다. 특선급을 제외한 선발급과 우수급에서 신인들의 돌풍이 거세다.

반면 그동안 강축으로 인정받던 기존 강자들은 체력과 회복력에서 신인급 선수들에게 밀리며 경주를 주도하지 못하고 조연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새내기들의 돌풍 속에서도 베테랑의 저력을 보여주며 매 경주 선전을 펼치고 있는 중견 선수들이 있다.

●선발급, 황종대·함동주 경기력 상승세

우선 선발급에서는 황종대(B1 9기 광주 43세)와 함동주(B1 10기 청평 39세)를 꼽을 수 있다. 황종대는 올해 열린 6번의 경주에서 무려 5승을 거두며 승률 83%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우수급에서 선발급으로 강급된 이후 승률이 33%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상승세다. 황종대가 이렇게 돋보이는 성적을 기록하는 데는 우선 전법 변화를 꼽을 수 있다. 그동안 고집하던 전형적인 추입 승부에서 벗어나 올해 자력승부를 장착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창원 13회차 경주에서는 젖히기로 승리하더니, 결승에서는 한 바퀴 선행으로 충청권 연대 김덕찬(B2 8기 미원 43세)과 동반입상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함동주 역시 올해 5승으로 83%의 승률을 기록 중이다. 연대율은 100%. 유일한 2착 승부가 창원 15회차 결승에서의 선행승부일 만큼 매 시합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올해 입상한 경주에서 선행 3회와 젖히기 2회를 기록해 신인급 이상으로 자력승부를 시도하고 있는데, 과감한 도전만큼 성적도 뒷받침해 고무적이다.

최성일(B1 10기 광주 43세)도 두 선수의 상승세만큼은 아니어도 매 경주 투혼을 불사르는 경기력을 펼치고 있다. 결승 입상을 포함해 올해 승률 33% 연대율 100%를 기록 중이다. 인지도를 뛰어넘어 입상할 만큼 지난해보다 향상된 선행력을 구사한 점이 눈길을 끈다.

●우수급, 이용희·김원진 승률 100%

선발급에서 자력승부를 앞세운 베테랑들이 활약을 펼치는 것과 달리, 우수급에서 돋보이는 중견 선수들은 다른 전법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선수가 이용희(A1 13기 동서울 40세)다. 올해 참가한 6번의 시합에서 모두 우승해 승률 100%를 기록 중인데 오직 추입승부로 이룬 성적이다.

마크 추입형들은 선행형 타깃을 잘못 선택하면 고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용희는 매 시합 빈틈없는 타깃 공략과 승부거리 조절을 통해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평소 선행 선수를 잘 지켜주기로 정평이 나있고 철저한 선수 파악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김원진(A1 13기 수성 39세)도 이용희와 비슷한 케이스다. 올해 3번의 시합에서 기존의 인지도를 의식하지 않고 최근의 흐름을 파악해 활용할 타깃 선정에 모두 성공했다. 그 결과 올해 3승과 승률 100%로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마지막 한 바퀴'의 김동우 경륜 분석 전문가는 "최근 흐름은 신인급 젊은 선수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중견들의 저력 있는 경기력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중견 선수들의 경기력이 더 올라온다면 신구간의 대결을 지켜보는 흥미는 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내민간체육시설 지원 '고용지원사업 TF' 발족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기금조성총괄본부는 26일 미사 경정장 운영동에서 '고용 지원 사업 TF(사진)'를 발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고용 지원 사업 TF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고용 위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스포츠산업계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마련한 지원대책의 하나이다. 실내체육시설업계를 대상으로 2021년 1차 추경 예산으로 마련한 1005억 원 규모의 고용 지원사업을 뒷받침하는 조직이다.

지원 대상은 국내 소재 민간 실내체육시설이며 재고용되거나 신규 고용된 종사자 1만 명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월 160만 원을 지원한다. 근로조건은 주 30~40시간 근무에 4대 보험 가입 조건이며 신청 접수는 5월 10일까지다. 신청은 고용지원 사업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사업 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진 기자

기금조성총괄본부, '사랑의 단체 헌혈' 동참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기금조성총괄본부는 23일 광명 스피돔에서 '사랑의 단체 헌혈 행사(사진)'를 진행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헌혈자가 감소하면서 심각해진 혈액 부족 현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금조성총괄본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헌혈은 광명 스피돔 주차장에서 실시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은 이날 행사를 위해 헌혈 차량을 지원했다. 참가자들은 발열 검사와 이동, 헌혈을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헌혈에 참여한 직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수진 기자

14년만에 통산 100승…'늦게 핀 꽃' 김승택

심상철 등 동기들과 달리 오랜 도전
안정된 선회력 플라잉 스타트서 선전

김승택

경정선수 14년 차.

긴 시간을 버텨내며 개인 통산 100승 달성에 성공한 선수가 있다. 김승택(7기 A2 42세)이 그 주인공이다.

경정 7기 선수로 동기 중에는 그랑프리 대상경정 3연속(2010~2012년) 우승을 기록한 배혜민(A2 41세)과 현 경정 최강자로 손꼽히는 심상철(A1 40세)이 있다. 반면 눈에 띄는 선수는 아니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김승택이 오랜 도전 끝에 8일 목요 1경주에서 개인 통산 100승 달성에 성공했다. 신인으로서 첫해였던 2008년 단 1승도 기록하지 못하는 등 순탄치 않은 선수생활이었던 만큼 그에게 통산 100승은 남다른 감회로 다가왔을 것이다.

김승택의 체중은 67.2Kg로 경정 선수치고는 과체중이다. 이에 온라인 스타트 경주에서는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하지만 최근에는 안정된 선회력을 바탕으로 플라잉 스타트 경주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

신인시절인 2008시즌부터 2010시즌까지 총 5승을 기록하는 등 초라한 성적을 거두며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던 그가 서서히 스타트 집중력이 좋아지며 2011년에는 14승을 기록했다. 이 기간 평균 스타트 0.28초 2착 22회 3착 13회로 꾸준한 성적을 기록하며 승률 17.9% 연대율 46.2% 삼연대율 62.8%를 기록했다.

김승택은 "선수 생활 중 가장 아쉬웠던 때는 2019시즌 그랑프리 결승전"이라고 했다. 다른 선수를 압도하는 휘감기형 선수는 아니었지만 꾸준한 스타트(2016~현재까지 평균 스타트 0.26초) 집중력을 유지했던 그에게 2019년은 최고의 시즌이었다.

2019시즌 한 시즌 18승이라는 개인 최고 기록으로 생애 첫 그랑프리 대상경주 결승전에 진출했다. 예선전 성적을 바탕으로 1코스를 배정받아 시즌 평균 스타트보다 빠른 0.23초를 기록했지만 경기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5착을 기록했다. 그는 "경정 선수로 데뷔 후 대상경주 첫 출전에 첫 우승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오를 다졌지만 아쉬운 결과를 남겨 지금도 많은 후회를 한다"며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였다.

이서범 경정고수 경기분석 위원은 "모든 선수들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주를 할 수 없어 그 어느 때보다 아쉬움이 크다"며 "현실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 경기력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